

**Q** 저는 몇년전에 군 제대를 한 후 3년전부터 돼지를 기르기 시작한 시골 청년입니다.

처음에는 새끼를 구입해서 비육시켜 팔곤 했으나 작년부터는 번식도 겸해서 양돈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말에 처음으로 5마리의 암돼지가 임신을 해서 오는 3월초 ~ 중순경에는 모두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돈을 해 왔지만 새끼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날이 갈수록 몹시 초조하고 걱정이 됩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을 무렵에는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고 또 새끼 낳을때의 돼지관리 방법을 상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 두미리 4번 윤대균>

**A** 먼저 귀하의 양돈사업이 날로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양돈을 경영하면서 돼지 새끼를 처음 내 보시는 분으로 생각되어 기초적인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의 임신기간은 평균 114일(3개월 3주 3일) 이므로 종부를 한 날로부터 114일이 되는 날을 유념해서 분만에정일을 정하여 놓고 예정일 약 1주일 전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면, 우선 새끼 낳을 방(분만실)을 정하여 놓고 분만책(分娩柵)을 설치한 다음 분만에 소요되는 기구와 소도구들을 깨끗이 닦고 소독과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새끼를 낳을 어미돼지의 몸도 깨끗이 닦아주고 소독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특히 돼지의 옆구리와 젖부독을 잘 닦고 3% 크레졸 비누액등 독성이 없는 좋은 소독약으로 소독을 잘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새끼 낳을 방에는 깔짚을 충분히 깔

아주어 돼지가 포근함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깔짚이 너무 길면 돼지의 발목에 짚이 걸려 활동하는데 지장을 주게 되고 반대로 너무 짧으면 짚이 한쪽으로 몰려 시멘트 바닥이 드러나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냉기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벧짚은 3등분하여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분만 예정일 1주일 전에는 분만실로 어미돼지를 옮겨놓아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분만실로 옮겨진 다음에는 세밀한 관찰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이때는 가능한한 어미돼지의 유방을 자주 만져주어 새끼를 낳은 후에 새끼에게 젖먹이는 훈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새끼를 낳기 5일 전부터는 사료를 점차 줄여 주어 새끼를 낳는 당일에는 평상시의 2/3 ~ 1/2량까지 줄여서 먹어야 합니다.

또한 갓낳은 새끼돼지는 추위에 몹시 약하기 때문에 미리 열원(熱源)을 준비하는 등 보온대책도 강구하여 갓낳은 새끼돼지가 추위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갓낳은 새끼돼

지에게 적합한 온도는 28℃ 정도입니다. 따라서 분만실에 난로를 피우거나 분만상자에 백열전구를 켜주어 최소한 25℃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야간분만에 대비해서 조명장치를 시설하고 새끼의 운반이나 수유에 필요한 상자를 준비해야 하며 탈지면과 가위 등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난산에 대비해서 강심제, 진통제 등의 약품과 주사기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끼 낳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만이 가까와지면 어미 돼지는 자리짚을 물어 모으면서 거동이 불안해지고 배분과 배노를 자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징후를 보이면 대개 12시간 이내에 새끼를 낳기 시작합니다.

분만을 할 때는 대개 누워서 하게 되지만 새끼를 처음 낳는 초산돈의 경우에는 서서 분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아는 머리부터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뒷다리부터 나오더라도 난산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분만을 도울 때는 조용히 행동하여 어미 돼지가 자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새끼를 받는 요령은 먼저 새끼가 나오면 미리 준비된 탈지면이나 마른 헝겊으로 코→얼굴→몸 전체 순으로 점액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특히 돈사내의 온도가 추울 경우에는 물기를 빨리 닦아주어야 합니다.

새끼돼지 몸의 점액을 다 닦은 다음에는 배꼽을 잘라 주어야 하는데, 배로부터 4~5cm 정도되는 부위를 실로 묶고 소독된 가위로 자른 다음 옥도정기를 발라 주어야 합니다.

그 후에 순종이 아닌 비육돈으로 키울 새끼라면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꼬리를 잘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꼬리를 자르는 방법은 전기단미기 등으로 2~3cm 정도의 꼬리를 남겨두고 자른 후 소독약을 발라 주어야 합니다.

위와같은 처치가 다 끝나면 실내 온도가 적어도 25℃ 이상 유지되는 분만실이나 보온이 되는 분만상자에 수용하여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응답 : 대한양돈협회 홍보부)

## 「질의응답」란 이용 안내

**알림 :** 본지에서는 지난 해부터 「질의응답」란을 설치하여 독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양돈경영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좋으니 본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에서는 독자들로부터의 질의사항이 접수되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질의 내용에 따라 그 분야의 권위자를 선정하여 해답을 곧 편지로 당사자에게 알려드리고 그 내용을 그 달의 월간양돈에 게재해 독자들이 다 함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라 모르면서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창피한 일입니다.

날로 확대되는 수입개방 사회에서 우리의 양돈 산업이 국제 경쟁을 헤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질의가 있기를 바랍니다.